

‘뷰티 양대산맥’ LG생건·아모레 실적부진 대응책은

M&A로 동력 확보, 美·日 집중공략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해외 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해 실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6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2023년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두 회사 모두 부진한 실적 원인으로 중국 매출 감소를 꼽았다.

LG생활건강의 2023년 연간 매출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6조8048억원, 영업이익은 31.5% 감소한 4870억원이다. 이 가운데 뷰티 사업의 연간 매출은 2조8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6% 감소해 반토막 났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중국 수요 약세로 뷰티 사업에 전반적인 수익성이 하락했다. 해외 시장 매출이 2조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는데, 이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19.6% 감소해 악영향을 미쳤다. LG생활건강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인 가운데 주요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 11%, 북미 9%, 일본 5% 순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도 부진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2023년 실적은 매출 4조213억원, 영업이익 1520억원이다.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44.1% 감소했다. 이는 매출에서는 4737억원, 영업이익은 1199억원이나 증발한 규모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해외 사업 매출에서 6%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해외 사업 중 아시아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초반이다. 중국 사업 적자로 아시아 전체 영업이익도 적자전환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23년 9월 색조 브랜드 ‘힌스’를 인수해 일본 화장품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작년 매출 6.8조
전년비 5.3%, 영업이익은 31.5% ↓
日 인지도 높은 ‘힌스’ 지분 인수**

**아모레퍼시픽 매출 4조 10.5% ↓
코스알엑스 지분 93.2% 취득
북미·유럽 등 140여개국 진출**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 업계는 중국에서의 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자회사로 편입한 코스알엑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데 따른 분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1년 9월 코스알엑스 지분 38.4%를 취득했다. 당시 잔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지난 2023년 10월 해당 옵션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의 지분 93.2%를 보유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코스알엑스는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로 ‘스네일 라인’, ‘THE RX 라인’을 내세워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6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2044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 2023년 연간 매출 4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북미, 동남아, 유럽, 일본 등 1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해외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코스알엑스는 해외 매출이 큰 회사”라며 “코스알엑스의 고유 역량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전반에 걸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와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도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브랜드 인수에 나섰다. LG생건은 지난 2023년 9월 색조 브랜드 ‘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의 지분 75%를 42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기준, 힌스의 매출액은 218억원이며 매출 비중은 국내 50%, 해외 50%다. 특히 힌스는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G생활건강은 지난 2020년에도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피지오겔’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지오겔은 독일에서 시작된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아시아와 유럽, 남미에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의 경우도 LG생활건강이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더마 화장품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 사례다. LG생활건강은 해외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 더마 화장품 등 제품군 확장에도 주력해 실적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 허가자 mlee236@metroseoul.co.kr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분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자들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일-생활 균형·계속고용 등 인구변화 대응, 해법 찾는다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정부가 근로 시간과 계속고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한 안건을 논의해왔다.

경사노위, 13차 본회의 개최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구성, 이달 말까지 논의

노사정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2개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이달 말쯤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의제로 논의에 착수한다.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다만, 사회적 대화 의제 대부분이 노사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의 경우 경영계 측은 경직적인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 입장에 가깝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불발되자 현행 주 52시간 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방안도 노사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사 양측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강화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할지 재고용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이견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삭감

국비 전액지원 차량 범위도 축소
중·대형 최대 500만원→400만원
충전속도 빠른 차 사면 최대 30만원
1회충전 주행거리 보조금 차등강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이 올해 100만 원 삭감된다.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성능보조금 액수가 내려간다. 경·소형은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초소형은 정액 350만 원에서 정액 250만 원으로 바뀐다. 또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차량 범위가 축소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은 삭감하는 반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km에

전기차 보조금 주요 개편안	
2023년	2024년 (개편안)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중·대형 최대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 정액	→ 최대 400만원 → 경·소형 최대 300만원 → 250만원 정액
전기버스 배터리안전보조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300만원 지원	→ 배터리안전보조금 증액 300만원→1천만원 → 지급요건 강화 지급요건: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차량 중, 국제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커넥터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배터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한정
전기화물 성능보조금 소형 최대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정액 초소형 550만원 정액	→ 최대 1100만원 → 최대 800만원 → 400만원 정액

자료: 환경부

/뉴스1 그래픽

서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엔 특히 국비 보조금이 전액 지원(최대 650만 원)되는 차량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 차량가격 57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는 5500만 원 미만이어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 최대 65억

산업부, 작년 핵심기술 23건 유출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23건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19년 14건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최근 5년간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하이디스는 2004년~2009년 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 2021년 DDI기술 세계 2위 국내 반도체기업인 매그나칩의 미국 모회사를 중국계 사모펀드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해 기술유출 의혹을 받았다. 다행히 당시 미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심사를 실시하자 인수시도가 철회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과 관리, 심사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의 경우 30억원 이하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한다.

/세종=한용수 기자